

## 16 Dec 2012 단 하루라도 사람으로 살고 싶다.

단 하루라도 사람으로 살고 싶다.

고향의 부모형제, 자식, 남편을 죽음의 땅, 사막의 땅에 남겨두고 탈북하여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자들의 수는 2만 4천 여명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걸어온 길과 인생행로는 다르지만 단 하나 모두가 살기위해 택한 길 이였습니다.

거대한 하나의 감옥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인권이란 말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에 대한 인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수가 없는 것 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여성 누구라면 작은소망 하나 있을 것입니다.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안해로, 여자이기전에 강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 살림살이 잘하여 칭찬받는 이쁜 며느리라고 되보고 싶은 소망은 이 세상 어느 여성이나 꿈꾸는 미래 일것입니다.

망친 내 인생을 세상에 드러내기는 부끄럽지만, 슬픔과 고통으로 사무쳐 가슴한쪽이 뭉쳐잘린 내 운명을 이 세상에 대고 실컷 하소연 하고싶고 울고 싶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인간말종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 비참하게 인권유린을 당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탈북하면 굶주림을 면할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떠났던 그 길이 가슴을 치고 땅을치며 통탄하는 길이 될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탈북자란 이유로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 또 다시 북한으로 강제북송되어 남의나라 씨종자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구타와 힘든노역으로 강제유산 당하고 태어난 어린 새끼를 어미앞에서 무참히 죽이는 야만들의 세상에서 또 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북한여성을 엄마로 두었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중국땅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지만 언제면 돌아올 엄마를 기다리며 길거리에서 헤메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간 한국땅에서 겪어야 하는 그들의 아픔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북한사람이라는 이유로 제2국민도 아니고 다문화가족도 아닌 열등감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들의 심정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22명의 탈북자들이 또 강제복송 되었습니다.

유엔난민 조약에 "강제송환금지"의 조항이 있지만 이 보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것입니까.

은 세계의 이목이 강제복송으로 되어 있지만 그 누구 하나 이것을 해결할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내에서도 거주이전의 자유는 물론 해외로 거주이전은 국민들의 권리에 속하지 못합니다. 이런나라로 강제복송 당하면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그 누구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형제 었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흐릅니다.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을 다른 고립된 섬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 취급을 하지말라고 또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인신매매로 팔려가며 피눈물을 흘리는 탈북여성들이 있으며 엄마를 목놓아 부르며 길거리를 헤메이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세계와 동떨어져 살고있는 인간이 아니라 세계 품속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소망은 배불리 먹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입니다.

세계의 관심과 배려를 기다립니다.